

노숙자 및 부랑인 발생원인과 양상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노숙자 문제의 외피는 가족해체, 주거공간의 상실, 정신적·육체적 손상, 이로 인한 인간적 존엄성의 상실 등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의 본질은 누적된 경제적 결핍 즉, 만성적인 빈곤화 현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비록 노숙자 문제가 외환위기와 대량실업사태에 의해 촉발되어졌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빈곤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 그 동안 경제성장의 누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의해 가려져 있었던 최하위계층의 문제가 경제위기상황에서 '노숙생활로의 전락'이라는 극적인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 글은 노숙자의 생활사를 추적함으로써, 첫째, 이들이 노숙생활로 이르는 경로를 파악하고, 둘째, 최하위계층의 빈곤생활실태를 제시하며, 셋째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당위성과 지원의 방향을 구체화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노숙자의 생활사 분석이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지지만, 부가적으로 노숙자와 쪽방 생활자의 비교, 부랑인 수용 시설 생활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노숙자의 생활사는 노숙자 응급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노숙자 11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적인 면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성장배경, 사회화 과정, 결혼과 주거생활, 직업이동경로와 직업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노숙자의 생활사를 통해 이들의 삶의 방식과 적응양식, 그리고 빈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노숙생활로 전락하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쪽방생활자에 대한 자료는 도시연구소의 '쪽방연구(미발간 자료)'를 이용하였고, 노숙자와 쪽방생활자를 비교함으로써, 앞에서 분석한 노숙자 문제가 광범위한 잠재적 노숙자 집단을 포함하고 있는 빈곤계층의 문제라는 점을 확인시켜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랑인 시설 생활자의 특성은 부랑인시설연합회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부랑인과 노숙자의 관계, 부랑인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관한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IMF 경제위기 이후 노숙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노숙의 원인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된 실업과 사업 실패 등의 외부적 충격은 노숙생활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지만, 근본적인 인원으로 설명하기 곤란하다.

둘째, 노숙생활로 전락하기 이전에 오랜 기간의 경제적 결핍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였으며, 빈곤상황이 심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생활에 적응하는 생존양식과 생활패턴이 고착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빈곤계층이 잠재적 노숙자의 풀을 형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위기와 대량실업 문제가 곧바로 노숙자의 급증현상으로 가시화 된 점은, 빈곤계층이 외부적 충격에 의해 위기상황에 직면할 때 위기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동원 가능한 사회적 자원이 거의 없다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넷째, 이상과 같은 이유로, 노숙 생활로 문제가 가시화된 노숙자들에 대해 일자리 연결과 숙소의 제공과 같은 일시적인 지원만으로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